

인쇄기술과 운명 함께 한 역사의 기록물 '포스터'

겨울철이 되면 우리 주위에서는 불조심 강조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다. 학창시절 한번쯤은 불조심포스터 공모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학생은 드물었을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박정훈)에서는 금년도 불조심포스터 수상작을 발표, 지난 10월7일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동안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한 불조심포스터 공모 수상작들을 살펴보는 한편, 포스터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불조심포스터 매년 전국 배포 범국민적으로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불조심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의 일환인 불조심 포스터·포스터는 전국적으로 30만 매(한국화재보험협회 기준)가 배포돼 불조심 강조는 물론 인쇄업계에도 작으나마 고정물량으로 자리잡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은 불조심 포스터·포스터 현상공모를 거쳐 인쇄물을 전국에 배포,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방안전협회는 지난 2002년까지만 공모를 하고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01년 실시 후 올해 다시 공모를 실시, 인쇄·배포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 197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공모는 매년 하지 않더라도 포스터·포스터를 매년 30만 매씩 인쇄해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화재예방 홍보에 기여하는 한편, 인쇄업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물량은

역대 최우수상 수상작들



>>1975년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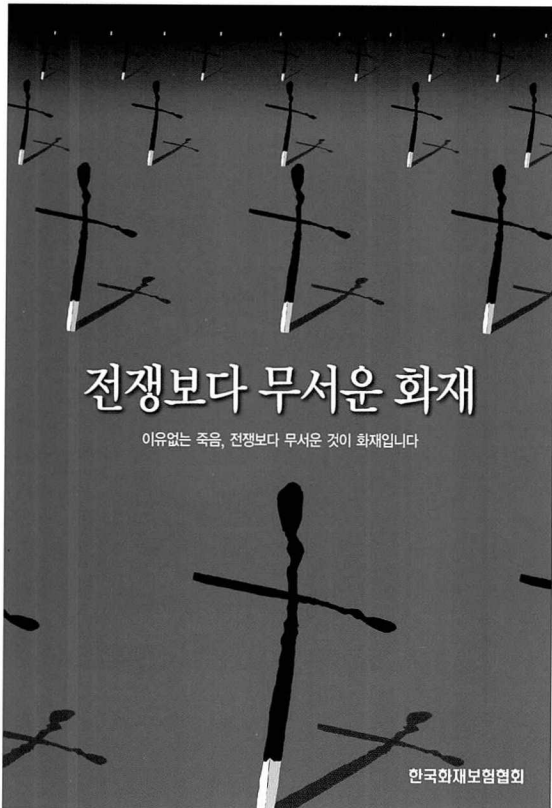
>>1978년



>>1979년



>>1980년



>> 2004년 최우수상



>> 2004년 우수상

표어·포스터 4×6 2절 및 4절 크기를 합쳐 30만 매(표어 13만 매, 포스터 17만 매)에 불과하지만 매년 고정물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포스터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쇄의 수준도 시대에 따라 살펴볼 수 있어 웬지 옛날 포스터를 보면 정겨움까지 느껴진다.

소방방재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불조심 포스터는 일선

소방서에 배포, 관할하는 커다란 빌딩 및 공공게시판에 부착하게 된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조심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화재사진' 및 '불조심 포스터'를 대여해 주고 있다.

노예 체포 포고문이 포스터의 효시 포스터는 시각디자인의 기본형식으로서 일정한 지면 위에 효과적 표현을 통해 강한 인상을 주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대중 전달매체다.

주제는 간략한 문안과 효과적인 그림에 의해 조형적으로 표현되고, 건축물의 벽면 및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붙여지게 된다.

포스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 도망친 노예를 체포하려는 포고문이 그 효시이며,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부조간판, 그리스의 적판 아쿠소누, 로마의 타베라 등 인쇄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시적 제작수법에 의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후 인쇄술의 발달이 된 목판



>>1981년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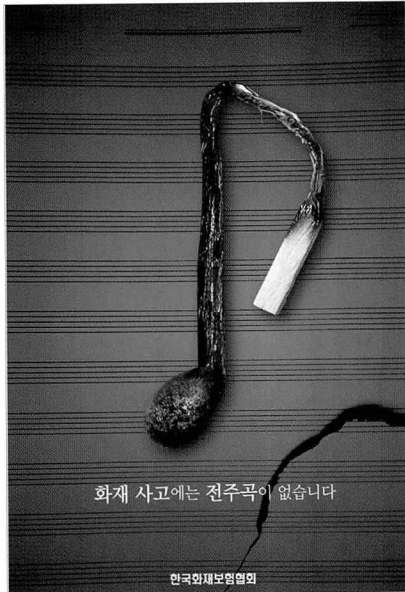
>>1983년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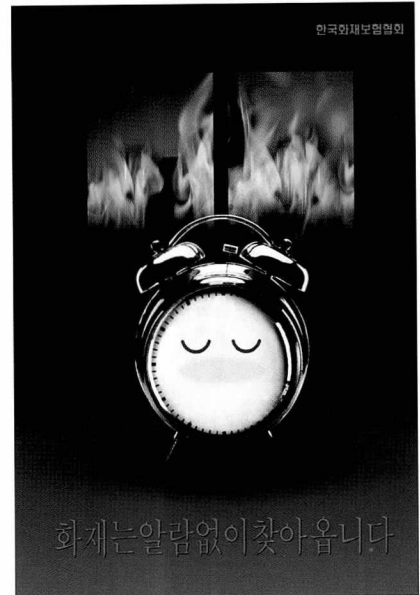
>>1985년



>> 2004년 장려상



>> 2004년 장려상



>> 2004년 장려상

인쇄에 의한 최초의 포스터 중의 하나가 1480년경 영국의 W.잭스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종교주의시대에는 교권에 의한 종교적 계급의 포고나 교령으로 발전된 형식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르네상스를 거쳐 상업의 흥성과 함께 활판인쇄의 제품 포스터가 출현해 17~18세기에 걸쳐 번성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포스터에 대한 법령이 생겨났다. 그러나 포스터가 광고매체로서 근대적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의 산업혁명 및 이와 더불어 인쇄기술이 발달한 19세기 이후이다. 1800년 독일의 A.제네펠더에 의해 개발된 석판인쇄술로 색채복사가 가능하

게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인쇄산업의 혁신으로 활판인쇄술 및 다색인쇄술이 크게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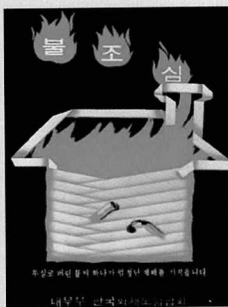
1966년 파리에서는 근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J.세레가 자신의 공방에서 석판인쇄로 포스터를 찍기 시작했고, 로트레크, 보나드 등 당대 일류 화가들이 포스터 제작에 참여해 파리 시민들을 매혹시켰다. 이들 포스터의 주제는 주로 카바레·서커스 등의 광고와 상품 및 서적광고 등으로 대담한 색채표현, 뛰어난 데생, 일본판화의 영향에 기인한 단순하고 신선한 구도 등으로 절정기를 맞이했다.

한편, 영국에서도 포스터 디자인의

개화기를 맞아 베거스타프 형제, D.하디, 비어즐리 등의 작가들이 활약했으며, 이들 역시 대중 벽화로서의 포스터로 각광을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스터는 바우하우스의 영향 아래 레터링 및 레이아웃 등의 근대화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근대 포스터가 선전매체로서의 구실을 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로 모병 및 방첩 등의 포스터는 그 위력과 중요성이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고 전후 상업선전분야에 널리 이용되었다. 포스터가 사회적으로 인식·평가되면서 그 제작은 기존의 화가 부업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디자이너의 손으

역대 최우수상 수상작들



>>1986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3년

로 넘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발달한 TV·라디오 등 전파매체로 인하여 포스터의 대중전달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된 듯이 보이지만, 현대 공간에 맞는 시트 포스터나 트랜스페어런시(transparency) 포스터, 슈퍼 그래픽적 포스터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근대 포스터는 석판인쇄 발명 이후 더욱 발달

포스터의 역사는 인쇄의 역사와 일치하며, 현존하는 최초의 포스터는 기원전 100년경 이집트의 파피루스 포스터(도망간 노예를 찾는 내용)라 할 수 있다. 이후 16세기에 상업을 목적으로 한 포스터가 등장했으며, 1798년 제네펠더의 석판인쇄 발명 이후 다색판 출현으로 세레, 로트레크, 피카소, 마티스 등이 이 기법을 사용하여 근대 포스터의 효시를 이루었다.

최초의 원색 석판인쇄 포스터는 1858년 세레의 '지옥의 오르페'이며, 근대 포스터는 풍자 포스터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비냐크의 작품에서 팝 아트, 옵아트로 이어져 발전했다.

현대로 접어들어서는 포스터의 기능에서 본래의 뜻과는 다른 아트 포스터가 성행하면서 기능이나 목적이 다양해졌다.

한편, 한국 포스터의 전기 양식은 고려 중엽부터 시작된 방(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기능에 있어서는 포스터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근대적 포스터는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인의 석판인쇄술 도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상품포스터로는 1925년 오프셋인쇄로 제작된 광목(면직물의 하나) 선전포스터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포스터는 전통적 테크닉 위주의 교육을 받은 화공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경제, 사회 구조상 포스터의 이용능력이나 인식은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포스터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60년대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산업사회화의 물결과 때를 같이 한다. 또한 60년대 후반에는 색채채현기술의 발달로 원색 사진포스터가 대거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의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는 한편 독자적인 이미지와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포스터는 역사의 기록이며 대중벽화 포스터는 대중에게 시각적인 인상을 순간적으로 자극시켜 보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의한 반응과 연쇄작용을 일으켜 강한 선전효과와 전달효과를 거두는 기능적 특징을 지닌다. 또한 전문 디자이너의 개성이 넘치는 고도의 조형성에 의해 당대의 사회풍속을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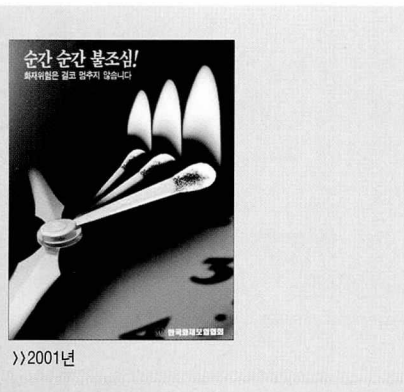
적으로 반영하는 역사기록이며 거리의 대중벽화라 할 수 있다.

포스터의 조형요소는 대개 문안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조형적 조화를 위한 형태·색채·구도·문안·규격 등이며, 내적 요소로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이 있다.

포스터의 종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포스터, 대중전달을 위한 공공포스터, 정치적 선전을 위한 정치포스터, 종교단체 행사의 종교포스터,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포스터, 전시 및 집회 등 문화행사를 위한 문화포스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 형식은 사실적 표현, 회화적 표현, 기하학적·추상적 표현, 환상적·초현실적 표현, 정서적 표현, 만화적 표현, 문학적 일러스트레이션에 의한 표현, 장식적 표현, 사진 표현, 도표에 의한 표현 및 문자에 의한 표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초창기의 인쇄방식이 목판에서 석판으로 발전했으며 다시 오프셋 및 그라비어, 사진 및 스크린 등으로 발전했다. 포스터의 규격은 지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표준치수로는 4×6 전지(72.8×103cm), 4×6 반절(51.5×72.8cm), 국전(59.4×84cm) 등이 사용된다.

〈윤재호 부장〉



인터넷 인쇄신문

www.printingkorea.or.kr

인쇄와 관련된 각종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6 TEL : 335-5881~3 FAX : 338-9801